제 1446 호 1991년 11월24일 창간 2019년 11 월 3 일

§ 교 회 목 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 행 동 지 침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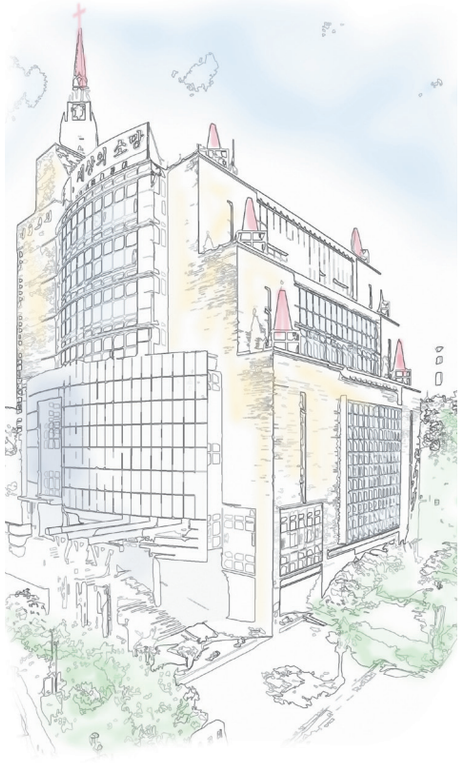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가나 혼인 잔치 I

(요 2:1-11)

이종윤 원로목사



1. 기쁨의 상징

로마서 14:17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기쁨인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구원의 교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갈 5:22에도 성령의 중요한 열매가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고, 시 32:11에도 기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 15:11은 기쁨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교리는 잘 안다고 하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외형적인 마크가 되는 기쁨의 열매는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을 하시었으며 천국의 내용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인 천국은 기쁨의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로 시작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잔치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메시아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기적의 동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한 말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칫집이 초상집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포도주를 풍성케 해 주셨다는 말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깊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천국의 잔칫집에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락의 열매가 없고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우리의 몸은 잔칫집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잔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3. 기적이 주는 교훈

예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증표로 제일 먼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이전에는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모든 기적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잔칫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예수가 세상에 오신 메시야 되심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율법과 새 계명을 대비시켜 주는 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가져온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심판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적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보이시기보다는 천국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예수님은 은혜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이 혼인 잔칫집에서 일어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간에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요, 잔치는 기쁨을 표시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만물과 생명의 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기적은 자연 기적, 치유 기적 두 가지 기적밖에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은 자연 기적이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치유 기적입니다. 자연 기적은 예수님은 자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요, 치유 기적은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신이 자연의 주 되심과 생명의 주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주 되심의 사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그 나라를 계시해 주는 계시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매우 냉정하고 기계적이고, 생명도 기쁨도 없는 속이 텅 빈 돌항아리 같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빈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빈 항아리와 같은 유대교,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자릿값을 하지 못하는 유대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에게는 질적인 변화,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지만 남은 것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칠 족을 멸해야 합니다. 아닥 자손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곱 족속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다시 죄악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묵은 세상이 하나님의 새 낙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놀라운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주 계속)

2020년도 봉사지원서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교구일꾼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사봉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2020년 교회 봉사지원서를 받는다.

지난 주 주보 삽지로 들어간 『2020년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기 도 회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 101호

2019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 시험시간별 기도회 일정 및 담당 교역자 -

- 찬양 : 8:30~ 8:40 / 최승원 전도사
- 국어 : 8:40~10:00 / 서명철 목사
- 수학 : 10:30~12:10 / 장석남 목사
- 점심시간 : 12:10~13:00
- 영어 : 13:10~14:20 / 조원영 목사
- 한국사, 사회· 과학탐구, 직업탐구 : 14:50~16:30 / 최승원 전도사
- 제2외국어·한문 : 17:00~17:40 자율기도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종자·박진희 김동봉 서대식·정승자 김혜란
김명심 김영선·권택숙 이선희 남영주·정인건
윤요섭·안재희 최영철·진주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1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1월 3일: 김봉배(통증) 박동우(영상의학)
- 11월 10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11월 17일: 최용준(한방)
- 11월 24일: 정철웅(일반외과) 이경진(성형외과)

- 상담시간 :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신약성경의 목회서신들에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칼레오(kaleo)"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롬 8:30, 고전 1:9)

또한 "온 세상에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라"고 부를 때도 사용됩니다.(벧전 2:9-10)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두 가지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나눠주다/부르다)를 통해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설명합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에 담긴 '소명'과 '부르심'의 개념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을 개인의 자아실현, 권력욕,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쪽에서 명령하고, 이편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그 일을 해낼 때에 비로소 소명이나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과업으로 일을 새로이 재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은 소명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관입니다.

성경적 노동관은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상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부여합니다.

▶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소명)을 받은 사명자인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인류 공동체(일상적인 일)를 건설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일반적인 직장(노동관의 확장)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기 도: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서 교회에서의 소명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성경통독: (전 성도 성경읽기표 기록)

▶ 주어진 "사명자대회 기도문"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김혜언 집사
(2019사명자대회 교육분과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명자대회가 시작되면서 기도카드를 받고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몸도 연약해지시고 오랜 치매로 기억이 오래가지는 않으셔도 어머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던 "사명자대회"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느리지만 또박또박 읽어나가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기쁨과 동시에 오늘까지 서울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서울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께 마냥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히 올라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힘겨워 할 때는 교회를 찾아 무릎 꿇어 밤새 기도하시고, 교회가 건강하여 성장할 때에는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팔을 걷어 붙이시고, 교회가 아파할 때도 누구보다 애통해 하시는 귀한 어르신들을 주위에서 보고 배우며 자란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울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어르신들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에 언제나 감격하여 저를 늘 숙연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있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보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감사와 나눔의 본을 보여주시고 다독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인내와 충성된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서울교회 어르신들의 그 본을 따라,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저희 교육분과는 이번 사명자대회에서도 "사명자"로서의 믿음의 계대를 잇는 우리 다음 세대 양성을 지향하며, 매일 낮 12시 "느헤미야 기도"에 적극 동참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교육부서가 사명자 기도를 담당하는 요일로, 특별 새벽기도에는 학생들도 적극 참석을 독려 함으로서, 서울교회의 "기도하는 사명자"들로 키워내기 위한 약속들을 시행하며, 부모님들의 기도 신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조부모를 이은 부모님의 기도와 말씀을 먹고 자란 서울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은 매우 씩씩하고 건강합니다. 힘들고 짜증내는 환경임에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이며 환한 모습으로 서울교회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는 우리가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건강함은 이미 서울교회의 8층을 뚫고 올라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족되고 훈련된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는 이제 어엿이 어느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서울교회의 사명자"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하여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무릎"을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심 감사합니다.

기대하여 주시고, 11월의 남은 사명자대회 기간 및 특별새벽기도에도 내 가정의 자녀들이 피곤하다, 모른 척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재예방

안전한 겨울을 위하여

순례자는 가을을 맞아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고양소방서장으로 재직 중인 서은석 집사님께서 알려주신 화재 예방을 게재한다.

서은석 집사
(13교구, 고양소방서장)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아마도 우리 교회의 중·장년층 이상분들은 이맘때면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떠오르겠으나 요즘의 청소년층은 생소한 문구일 것입니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성장 위주 경제정책으로 오늘의 부유한 대한민국은 이루었으나 안전이 소홀히 되고 화재발생 요인 또한 다양하여 이 표어 만큼 국민적인 사랑(?) 받는 표어가 없습니다. 화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사전에 대비한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서울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정은 물론 삶의 터전이나 근무하는 직장에서 안전한 겨울철을 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각종 재난사고 예방정책 추진과 재난현장 대응을 해온 경험으로 얻은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려드리니 모두 지키고 안전을 생활화하여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가정에서,

노후화된 전선은 바로 교체하고, 한 콘센트에 불필요한 많은 전기 제품을 장시간 꽂아 쓰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건은 주변에 두지 말고, 특히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으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 등을 삶을 때에는 잊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합시다.

둘째, 사업장에서,

화기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책임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유사시에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 공사로 용접이나 용단작업을 할 때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고 작업하고 건축물이 목재,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 등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건축자재일 경우에는 감독자를 배치하고 작업시간을 짧게 하여 장시간 작업으로 열축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셋째, 일상생활

가정이나 사업장에 꼭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가 나면 즉시 119로 신고 합시다.

또한 화재현장에 있는 경우 유독성 연기로 질식할 수 있으니 즉시 지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고 유운순 집사님을 추모하며

한 송이 백합 같으셨던 집사님

사랑하는 유운순 집사님.

바로 지난 수요일에도 교회에서 집사님을 뵈었는데 갑작스러운 당신의 소천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쓸쓸합니다. 경상도 영주에서 지병 치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시어 서울교회에 등록하시고 9년여의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던 집사님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교회의 분쟁이 난 후에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며 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유집사님, 집사님의 믿음은 들에 핀 한 송이 백합처럼 너무도 순결하셨습니다.

가녀린 몸매로 항암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몸에 힘만 나면 교회로 달려오시던 사랑하는 유운순 집사님! 최근에 5분도 걷기 힘드시다던 집사님께서 그 날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셨다며 수요예배를 드리시고 부다락방장의 본분을 다하시기 위하여 다락방리더 교육까지 참석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날이 마지막이었다니요.

한복을 입으시고 활짝 웃고 계시는 당신의 영정 사진이 얼마나 곱던지 생전의 집사님을 만나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셋, 그리고 남편을 남기시고 홀로 눈을 감으셔야 했던 새벽 시간, 그때 집사님께서 느끼셨을 애닯음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한편으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영정 사진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유운순 집사님, 이제 집사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셨던 예수님 품 안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허 숙 권사(권사회장)

교회는 권사회(회장 : 허숙 권사) 주관으로 11월 25일(월), 26일(화) 베델하우스에서 약 350포기의 김장을 합니다. 배춧값이 금값이라 금추라고 부르는 요즘 서울교회 김장 배추와 무는 오정수 장로님 댁 텃밭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약 400포기의 김장을 하여 겨울을 잘 났는데 올해는 유기농 배추와 무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랑과 정성의 양념을 듬뿍 넣고 김장 김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절임 배추로 김장을 했던 반면 올해 김장은 배추를 자르고, 절이고, 씻는 공정이 추가 되므로 남자 성도님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데반회, 권사회, 각 전도회원들은 위의 김장날짜를 숙지하시고 교회 김장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5일(월) : 배추 자르기, 절이기, 절인 배추 뒤집기
- 26일(화) : 배추 씻기, 물빼기, 양념만들기
  오후에 김치속 넣기

세부 시간은 다음주 순례자에 공지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일정을 조정하시어 교회 김장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합시다!

동 정

■ 연주회 : 8교구 장윤식 집사『클래식기타 독주회』
11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영산양재홀

■ 금주의 식사 : 홍동기 성도 조정옥 권사
(아들 홍석현 집사 서울의대 박사 학위 취득 감사)
표고버섯우엉밥, 김치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

반려견을 위한 호텔 운영

호산나대학 부설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는 반려견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용 실내외 호텔 놀이터(운동장)를 운영 중이며 전문 훈련사가 24시간 관리하며 반려견의 위생을 위해 개인하우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용시 항체검사서가 필요하며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전화문의는 호산나대학 031-585-9184, 박창점(전공학과장)010-6420-9307으로 부탁드립니다.

픽업서비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중이며 오전 8시 30분 서울교회 앞 한티공원, 오전 8시 40분 종합운동장역 2번출구에서 가능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1월4일	월	요 19-21		암 1-9, 옵, 욘 1-4	
11월5일	화	행 1-2		미 1-7, 나 1-3, 합 1-3	
11월6일	수	행 3-5		습 1-3, 학 1-2, 슥 1-5	
11월7일	목	행 6-7		슥 6-14, 말 1-4	
11월8일	금	행 8-9		마 1-6	
11월9일	토	행 10-12		마 7-11	
11월10일	주일	행 13-14		마 12-15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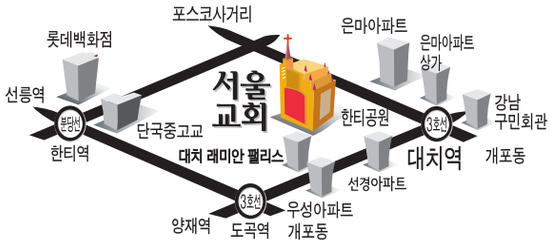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19 사명자대회 릴레이기도에 힘씀으로써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3.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5시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